

# LFT, 범용EP 대체 아이템 부상

KEP, 2004년 하반기부터 상업생산 ... 강도 · 내열성 매우 우수

LFT(Long Fiber Thermoplastic)이 Nylon, PBT 등 범용 EP(Engineering Plastic) 대체품으로 부각되면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2004년 하반기부터 LFT 사업에 뛰어 들 예정이다.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의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는 PP에 장섬유를 컴파운딩하는 형태에 그치고 있지만 강도면서 단섬유를 첨가하는 Nylon이나 PBT 보다 우월해 시장잠재력이 막대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시장진입 이유를 밝혔다.

특히,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의 모기업인 Ticona가 독일에서 자동차 부품에 적용한 사례가 있어 수요 개발에 있어 더욱 유리한 위치에 있다.

## LFT와 EP의 물성 비교

(단위: kg/cm<sup>3</sup>, %)

구 분	LFT	Nylon	POM	ABS	PA
비 중	1.11	1.2	1.54	1.21	1.27
인장강도	1,060	884	1,100	850	1,200
굴곡강도	1,450	1,430	-	1,300	1,500
수축율	0.2-0.3	0.2-0.4	0.8	0.1-0.3	0.1-0.3

자료)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한편, 국내에서는 SAMBARK LFT가 국내 최초로 개발해 <SUPRAN> 브랜드를 출시한 상태이며 아직까지는 용도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국제적으로는 Ticona와 DSM, GE 등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6/24>